

길림성의 대북투자: 현황과 유형*

배종렬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khsbcr@chol.com

I. 문제의 제기

김정일 와병(2008. 8)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가 가시화되면서 길림성의 대북무역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즉,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가 시행되었던 2002년 이후 1~2억달러대에 불과하였던 길림성의 대북무역이 2008년에는 6억달러대로, 그리고 2014년부터는 10억달러대로 진입하였다.¹⁾ 이에 따라 길림성 무역에서 북한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되면서 길림성 전체 수출에서 북한의 지위는 2002년 6위(4.36%, 8,155만달러)에서 2014년부터는 1위(2014년 12.09%, 7억 5,560만달러; 2015년 11.1%, 5억 9,830만달러)로 상승했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길림성은 ① 동광(HS2603), 철광석(HS2601), 몰리브덴(HS2613) 등의 광물자원에서 대북수입 1위, ② 어류 대북수입 1위, ③ 의류 대북수입 1위²⁾ 등을 차지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길림성이 요녕성을 제치고 건수 기준, 대북투자 1위 성(省)으로 부상한 점이었다. 그렇지만 길림성의 대북투자에 대해 전반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본 소고는 이 점에 착안, 중국의 동북삼성개발 가시화로 북한경제가 재평가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길림성의 대북투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본 논문은 배종렬·윤승현,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5의 연구보고서를 발췌·요약·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의 수정과 함께 통계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다.

1) 무역협회의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길림성의 대북수출은 7억 5,560만달러, 대북수입은 4억 3,295만달러, 수출입 합계 11억 8,855만달러였고, 2015년에는 수출부진으로 대북수출 5억 9,830만달러, 대북수입 4억 640만달러, 수출입 합계 10억 470만달러였다.

2)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길림성의 어류(HS03) 대북수입은 2006년부터, 의류(HS61) 대북수입은 2015년부터 요녕성을 추월했다.

II. 대북투자의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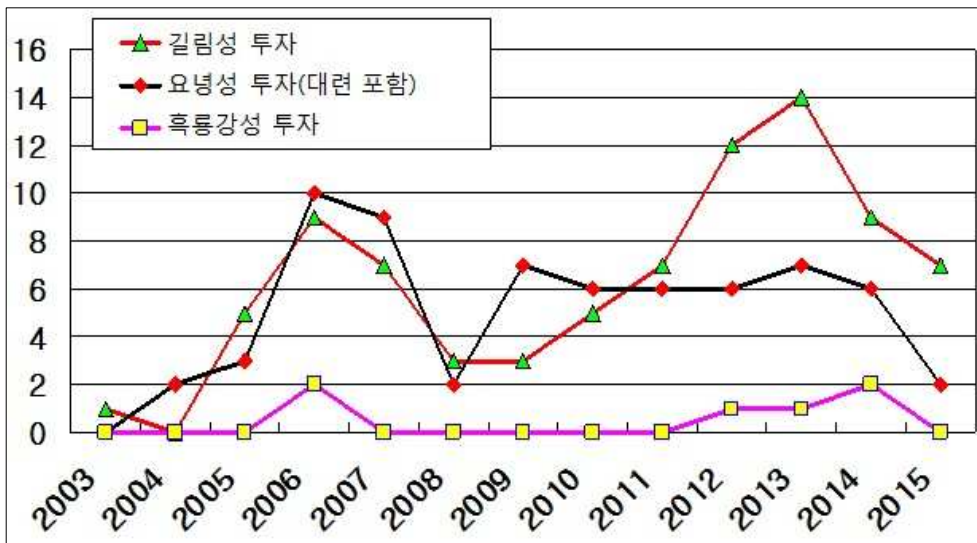
1. 대북투자 주도지역으로 길림성의 부상

김정은 시대가 심화되면서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세 가지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동북삼성에서 길림성의 전략적 위상 변화였다. 즉, 7·1조치 이후인 2003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동북삼성의 대북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길림성 82개사(연변조선족자치주 57개사), 요녕성 66개사(대련 4개사 포함), 흑룡강성 6개사 도합 154개사로 추정되는데, 길림성의 대북투자가 요녕성을 제치고 약진한 점이였다(그림 1 참조). 이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2009. 10) 이후 중국의 동북삼성과 북한경제 연계개발체제의 심화와 함께 길림성을 창구로 한 여타 성의 우회투자 증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보듯이 ① 요녕성 대련의 ‘동양’과 ‘창력’, ② 흑룡강성 하얼빈의 ‘북대황’, ③ 홍콩의 ‘왕복특’ 등의 투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림 1] 중국 동북삼성의 연도별 대북투자(2003~15년)

(단위: 개사)



자료: 배중렬·윤승현,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5, pp.20~21의 자료를 업데이트함.

〈표 1〉 주요 우회 투자기업(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 원기업 지역과 기업명	우회투자 지역과 투자 모회사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특기사항
2005. 2	산둥성 초원시: 산둥초금집단유한공사 (山東招金集團有限公司)	장백경제개발구: 초금광업유한공사 (招金礦業有限公司)	혜산초금합영공사 (惠山招金合營公司)	동광개채: 절강성 만향집단(萬向集團)이 인수
2012. 8	요녕성 대련시: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大連東揚海產有限公司)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 (朝鮮羅先巨盛加工貿易會社)	수산물
2012. 8	요녕성 대련시: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 (大連創力經濟貿易有限公司)	훈춘시: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조선라선창력 국제물류유한공사 (朝鮮羅先創力 國際物流有限公司)	라진항 1호 부두 경영, 물류창고, 해상·도로 운수
2013. 1	흑룡강성 하얼빈시: 북대황집단 (北大荒集團)	훈춘시: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 (吉林省壘一農業 科技有限公司)· 훈춘시북대황경무유한공사 (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	라선북대황우의농업회사 (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벼, 옥수수, 채소, 종자, 가축, 식용버섯 등 재배
2014. 4	홍콩: 홍콩왕복특유한공사 (香港旺福特有限公司)	연길시: 연변왕복특수출입 무역유한공사 (延邊旺福特進出口 貿易有限公司)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 (羅先旺福特貿易有限公司)	대형 상업단지 건설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22의 자료를 수정함.

〈표 2〉 길림성의 연도별 지역별 대북투자(2003~15년)

(단위: 개사)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장춘시			1	1	1			1	1	3	2	1		11
연길시				1	1	1			2	2	5	3	1	16
도문시			2	2	1						3			8
화룡시					1						1			2
돈화시				1		1								2
훈춘시	1				2		1	2	3	5	1	2	5	22
용정시			1		1				1	1	1		1	6
왕청현								1						1
부여시											1	2		3
요원시				1			1							2
백산시			1	1			1	1		1				5
집안시				1										1
반석시				1		1						1		3
길림성 전체 (연변자치주)	1 (1)	0 (0)	5 (3)	9 (4)	7 (6)	3 (2)	3 (1)	5 (3)	7 (6)	12 (8)	14 (11)	9 (5)	7 (7)	8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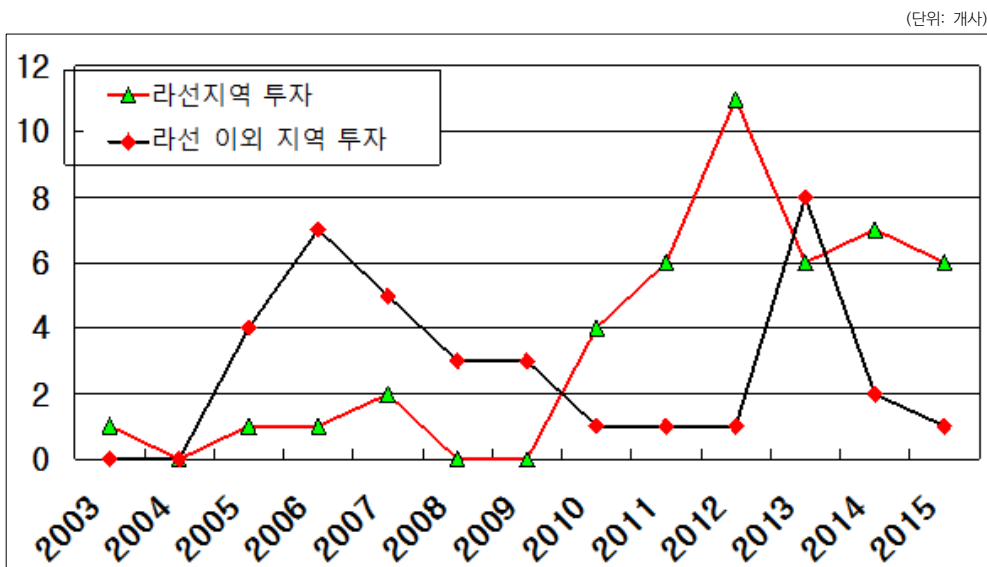
주: 연도는 상무부 비준 기준임.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24의 자료를 업데이트함.

또한 길림성 대북투자를 투자 모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훈춘 22개사, 연길 16개사, 장춘 11개사, 도문 8개사 순으로 나타나 장춘-훈춘 축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2. 라선경제특구의 경쟁력 재평가

둘째는 라선지역의 재평가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03~09년 기간 길림성 대북투자의 81.48%가 비라선지역을 선택했지만, 2010년부터 길림성의 대라선 투자가 비라선지역 투자를 능가하면서 2010~15년 기간에는 74.07%가 라선지역에 투자해 2003~15년 기간 길림성 대북투자(82개사)의 54.88%(45개사)가 라선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두 가지 상황의 변화가 기폭제였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 간에 경제특구 공동개발 공동운영체제가 탄생하면서 중국기업에게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의 보장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라선지역 투자여건 개선이었고,³⁾ 다른 하나는 중국 당국에 의한 라선지역의 투자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중국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이었다.

[그림 2] 길림성의 대라선 지역 투자(2003~15년)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26의 자료를 업데이트함.

3) 김정일의 라선시 현지지도(2009. 12. 16) 이후 라선직할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0호(2010. 1. 4)로 라선특별시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투자인프라 구축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금융시스템으로 중국 훈춘농촌상업은행(琿春農村商業銀行)과 북한 조선라선개발금융회사 간에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인민폐 계좌정산시스템이 구축(2012. 8)되고,⁴⁾ 라선지역에 중국 100% 투자기업인 중화상업은행(中華商業銀行)의 설립이 중국정부의 비준(2013. 1. 18)을 득했다.⁵⁾ 두 번째, 체신시스템으로 훈춘과 라선의 우정국 간, 훈춘-라선 간 변경우편물 직통교환시스템이 2014년 3월 3일 개통되었는데, 이전에는 훈춘-북경-평양-라선이라는 경로를 통해 우편물이 교환되었었다.⁶⁾ 세 번째는 훈춘 전력의 라선 송전으로 길림성전력유한공사(吉林省電力有限公司)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액 2.88억위안의 훈춘-라선 동해 66kV 송전선로 건설항목을 확정(2013. 1. 31)하고,⁷⁾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북한 측 구간공사를 진행하다가 장성택 숙청파동(2013. 12)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그런데 송전선로(66 kV)의 총길이는 92.5km(중국구간 52km, 북한구간 40.5km)였다.

3. 중국 대기업의 참여 확대

셋째는 중국 대기업들의 참여 확대였다. 전통적으로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규모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경우 1993~2003년 기간 중국기업들의 평균 투자규모는 43만달러에 불과했다. 평균 투자규모가 1993~97년 기간 31만달러에서 1998~2003년 기간 51만달러로 증대되었지만, 동 기간 여타국의 평균 투자규모는 75만달러에서 144만달러로 증가되었다(표 3 참조). 그러나 2002년 7·1조치 이후, 특히 전술한 중국 당국에 의한 투자인프라 구축 등이 진행되면서 길림성의 대북투자가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투자에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이 세 갈래 방향에서 길림성의 대북투자에 참여하면서 촉발되었다.

첫 갈래는 아태집단(亞泰集團), 길림 호융집단(吉林昊融集團) 등 길림성의 대기업이었다. 전자는 라선지역에 100만톤 시멘트공장 건설 착공식(2011. 6. 9)을 거행했고,⁸⁾ 후자는 투자 총액 600만유로인 선천금광공장을 개업(2009. 9. 21)하였다.⁹⁾

4) 중국 길림, 「훈춘시는 국제적 금융통로를 구축」(http://korean.jl.gov.cn/xw/201504/t20150430_1981026.html, 검색일: 2016. 4. 6).
5) 중화상업은행은 요녕성의 중국금무역화교역소(대련)유안공사(中國金貿易貨交易所[大連]有限公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2013년 8월 23일 중국 북경의 민영기업인 군령지주집단(君領控股集團)이 1억달러를 투자, 동 은행 지분 70%를 매입하였다. 中金在線網, 「君領控股收購中華商業銀行 進軍海海外銀行業」, 2013. 8. 23(<http://money.cnfol.com/130823/160.1538.15833547.00.shtml>, 검색일: 2016. 4. 6).
6) 훈춘시범구방, 「훈춘-라선 우정국 변경우편물 교환업무 정식 개통」, 2014. 3. 12(<http://www.hunchunnet.com/archives/267/>, 검색일: 2016. 4. 6).
7) 羅先港, 「琿春對朝鮮66kV輸變電工程項目進展順利」, 2013. 3. 12(<http://www.luoxiangang.com>, 검색일: 2015. 11. 16).
8) 배종렬·윤승현, 앞의 책, p.243.
9) 中國有色集團, 「朝鮮宣川金礦項目投資典禮及揭牌儀式隆重舉行」, 2009. 9. 22(http://www.cnmc.com.cn/detail.jsp?column_no=090301&article_millisecond=1000124, 검색일: 2015. 10. 6).

〈표 3〉 라선지대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투자규모(1993~2003년)

(단위: 천달러, 건수, %)

구분	1993~97			1998~2003			1993~2003		
	금액 (C)	건수 (D)	평균규모 (C/D)	금액 (C)	건수 (D)	평균규모 (C/D)	금액 (C)	건수 (D)	평균규모 (C/D)
중국(A)	13,283	43	309	31,462	62	507	44,745	105	426
전체(B)	56,107	75	748	106,396	74	1,438	162,503	149	1,091
투자 비중 (A/B)	23.67	57.33	41.31	29.57	83.78	35.26	27.53	70.47	39.05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5, p.46의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함.

두 번째 갈래는 흑룡강성의 북대항집단(北大荒集團), 절강성의 만향집단(萬向集團), 북경의 건재집단(建材集團) 등 여타 성의 대기업이었다. 북대항집단은 라선지역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을 위해 2003년 봄 두만강리 2개 협동농장에 2,000만위안을 투자했고,¹⁰⁾ 만향집단은 혜중광업합영회사(惠中礦業合營公司)에 현금과 설비형태로 3,122만달러의 출자를 상무부로부터 비준(2007. 8. 3) 받아¹¹⁾ 2011년 9월 19일 정식 개업하였다. 또한 건재집단은 산하의 북방시멘트집단 연변구역공사(北方水泥集團 延邊區域公司)를 통해 연 120만톤 규모(투자 총액 5.12억위안)의 평양강동군건재합영회사(平壤江東郡建材合營會社)의 시멘트분말공장(2015. 4)과 연 60만톤 규모(투자액 2,000만달러)의 라선성신건재회사(羅先誠信建材會社)의 시멘트분말공장을 완공(2015. 10)했다.¹²⁾

세 번째 갈래는 미국의 독자투자 기업인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이탈리아·도미니카·미국의 독자기업인 홍콩왕복특유한공사 등 외국계 투자기업이었다. 대련동양은 훈춘을 거점으로 라선지역에 900만달러 규모의 수산물 가공공장을,¹³⁾ 홍콩왕복특은 연길을 거점으로 라선지역에 라선왕복특유한공사(대형 상업단지), 동대은행(東大銀行: 금융), 라선우나포르테유한회사(금광개발, 등록자본 450만유로)를 설립했다.¹⁴⁾

10) 이종림, 「동북아 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무역활성화 과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한글판』, 한국수출입은행·베를린자유대학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2014. 7. 2, p.9.

11) 商務部, 「商務部關於同意設立惠中礦業合營公司的批復」, 商合批 618號, 2007. 8. 3.

12) 延邊投資促進網, 「北方水泥延邊公司化解產能過剩赴朝建廠」, 2015. 8. 17(<http://www.investyanbian.gov.cn/zjyb/zxxw/2015-08-17/393.html>, 검색일: 2015. 11. 7).

13) 중국길림, 「길림성, 대외진출 진척 가속화」, 2013. 10. 16(http://korean.jl.gov.cn/xw/201310/t20131016_1540596.html, 검색일: 2015. 10. 17).

14) 배종렬·윤승현, 앞의 책, p.255.

III. 대북투자의 유형과 주요 투자 기업

1. 출해구 확보형 투자

중국의 동해로의 출해구, 즉 북한 및 러시아 항만의 확보전략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시작된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진행되었지만, 북한항만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길림성의 출해구 확보전략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된 것은 2002년 북한의 7·1조치와 2003년 10월 중국 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도로-항만-구역일체화 건설의 언급이었다. 이후 중국 훈춘(도문)-북한 라진항(청진항)-상해 포동항을 연결하는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항만투자에 나섰다. 민간기업은 항만의 사용권 획득에 주력하고 중국정부는 협상과 법제도 구축, 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절강성의 차프그룹, 호남성의 동림그룹 등 여러 기업들의 불발 이후 <표 4>의 대련창력그룹과 해화집단에 의해 의미 있는 결실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대련창력그룹의 나진항 1호 부두 진출이었다. 2008년 4월 러시아의 개입으로 동림그룹이 나진항 3호 부두 이용권과 4호 부두 신설권의 확보에 실패한 이후라 그런지 대련창력그룹은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2009. 10) 시까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즉, 훈춘창력이 북한 라선강성무역회사(羅先強盛貿易會社)와 합영계약을 체결해 나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은 2008년 7월이었고, 대련창력이 훈춘창력(초기 자

<표 4> 주요 출해구 확보형 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5. 8*	훈춘시: 훈춘시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琿春市東林經濟有限公司) · 훈춘연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공사 (琿春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 (羅先國際物流合營公司)	라진항 3호와 4호 부두(50년 이용권과 경영권): 실패
2012. 11	훈춘시: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 (琿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조선라선창력국제물류유한공사 (朝鮮羅先創力國際物流有限公司)	라진항 1호 부두(사용권 10년 → 30년 → 40년으로 연장)
2013. 12	도문시: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해항합영회사 (海港合營會社)	청진항 3, 4호 부두

주: * 기업 등록일 기준임.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65.

본금 3,000만위안)을 설립한 것은 2008년 12월이며, 석탄운송 목적으로 훈춘창력이 2,600만위안을 투입, 나진항 1호 부두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것은 2009년 7월이었다. 대련창력은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 확보를 10년에서 30년으로, 그리고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면서¹⁵⁾ 북한 나진항에 대한 접근을 강화했지만 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았다.

결정적 약재는 <표 5>에서 보듯이 2011년부터 시작된 북한 및 몽골의 대중국 석탄수출(HS2701)의 급증¹⁶⁾과 2014년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석탄수출 참여였다.¹⁷⁾ 이에 대해 대련창력과 중국정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강구했다. 하나는 운송화물과 항구의 확대였다. 해관총서공고(2014. 5. 30)를 통해 기존 석탄에 식량·동의 컨테이너화물과 목재벌크화물을 추가하고, 항만도 기존 상해(上海), 절강성 영파(宁波)항에서 광둥성 황포(黃埔), 복건성 천주(泉州), 광둥성 산두(汕頭), 해남도 양포(洋埔)항을 추가했다.¹⁸⁾ 다른 하나는 나진항 1호 부두 개조이용협약서의 체결(2014. 8. 18)이었다. 그 내용은 나진항 1호 부두개발 제1기 공정에 3,000만위안을 투자(기계설비 2,000만위안, 야적장 평지 강화공사 1,000만위안)하고, 2기 공정의 국경교량, 통관능력, 도로, 전기시설 개선 등을 합쳐 총 1.14억위안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¹⁹⁾

<표 5> 북한과 몽골의 대중국 석탄수출(201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HS27011110)	수출 금액	386,188	1,126,850	1,189,794	1,373,711	1,132,184	1,045,790
	수출 물량	4,603,432	11,047,553	11,807,067	16,494,470	15,432,350	19,579,326
	수출 단가	0.08	0.1	0.1	0.08	0.07	0.05
몽골 (HS27011210)	수출 금액	948,630	1,587,942	1,579,305	1,127,598	839,876	504,913
	수출 물량	15,048,797	20,038,842	19,060,024	15,441,387	14,786,565	12,723,285
	수출 단가	0.06	0.08	0.08	0.07	0.06	0.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 통계(www.kita.net, 검색일: 2016. 4. 20).

15) 珲春創力海運物流有限公司, 「簡介」(http://vip.sol.com.cn/SOL04110475, 검색일: 2015. 12. 20).

16) 훈춘창력이 2011년 1월 11에서 2012년 5월 8일까지 나진항을 통해 상해(上海), 영파(宁波), 상주(常州) 등으로 운송한 훈춘석탄은 104,531톤에 불과했고,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는 석탄운송이 중지되었다. 반면, 북한이 2011년부터 중국에 수출한 물량은 연 1,000만톤대로 진입하였다.

17) 2014년 11월 24일 처음으로 러시아 유엔탄 45,000톤이 대한민국수출을 위해 나진항에 반입되었다.

18) 海關總署, 海關總署公告2014年第42号, 2014. 5. 30(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9/info708828.html, 검색일: 2015. 9. 25).

19) 珲春市航務局, 「工作動態 珲春市航務局2014年工作總結及2015年工作計劃」, 2014. 11. 7(http://hwj.hunchun.gov.cn/article/gzdt/201411/1185.html, 검색일: 2015. 9. 24).

둘째는 해화집단의 청진항 진출이었다. 중국의 도문시정부가 청진항 협상을 시작한 것은 2007년 12월이었고, 해항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정식계약은 2012년 9월 1일, 상무부비준은 2013년 12월, 정식 영업허가증 취득은 2014년 9월 23일인데(표 6 참조), 합영계약의 요점은 중국 측이 하역설비, 운수도구, 항구건설기재 등 943만 7,840유로 출자(지분 60.46%)를 통해 청진항 3·4호 부두 3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었다.²⁰⁾ 중국 측은 2014년 12월 현재 6,000만위안을 투입해 청진항에 필요한 3.6만㎡ 부두지면 안정화 작업, 195량의 통도전용객차 배정, 항구기중기궤도 및 케이블 부설, 컨테이너와 잡화 겸용 40톤급 기중기 제작 등을 마무리했다.²¹⁾ 여기서 관련 움직임으로 주목되는 것은 2011년 8월에 설립된 도문시의 도문경제개발구 조선공업원이었다. 대조선수출무역가공기지 및 조선노무합작기지 건설이 그 목표인 조선공업원은 총 투자액 20억위안, 계획면적 1km²로, 그중 이미 개발한 1기 공정면적은 0.4km²이다. 중점사업은 북한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류, 신발, 모자, 일용품 등 경공업 제품이 그 대상이었고, 2기 공정의 개발계획면적은 0.6km²인데, 중점사업은 북한시장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전신, 가전제품, 농기계 등 단말기과학기술제품(終端科技產品)이었다.²²⁾

〈표 6〉 해화집단의 청진항 진출 약사

연월	주요 내용
2007. 12	도문시정부 주도로 북한 청진항 진출협상 시작
2008. 6	도문시정부와 북한 청진철도국 간에 청진항 이용에 관한 <중국 도문-북한청진중국 장삼각지역 내수무역 초국경 철도운수협약>에 서명
2009. 10	연변해화무역유한공사와 조선영흥무역회사(朝鮮永興貿易會社) 간에 북한 남양-청진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화물 철도운송 계약서 서명
2009. 12	조선항만총회사(朝鮮港灣總會社)와 화물조직 협의회, 조선외국선박대리회사(朝鮮外國船舶代理會社)와의 북한 경내 및 항구 화물 대리운송 협의회 서명
2010. 5	조선영흥회사와 남양-청진철도 투자계약서 및 청진항 3~4호 부두 개조(항구 임대기간 15년) 계약서 서명
2012. 9	해화무역집단과 조선항만총회사 간에 해항합영회사 설립에 관한 정식계약서 서명
2013. 12	상무부 비준
2014. 9	해화무역집단 조선합영투자위원회로부터 정식 영업허가증 취득

자료: 배중렬·윤승현(2015), p.272의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함.

20) 『연변일보』, 「연변해화집단 조선항만총회사해항합작경영회사 설립」, 2012. 9. 6(<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55959.html>, 검색일: 2015. 11. 16).
 21) 吉林省政府網, 「關於綜合利用清津港開展陸海聯運的建議(133號)」, 2014. 12. 1(http://old.jl.gov.cn/zwgk/yatabl/rddbjy/2011_44711/2014/t20141201_1809149.html, 검색일: 2015. 11. 10).
 22) 『圖門政府網, 中國(圖們)朝鮮工業園項目』, 2015. 1. 21(<http://www.tumen.gov.cn/news.asp?id=1340&bigclassname=招商引資&smallclassname=>, 검색일: 2015. 11. 9).

2. 경제무역구 건설형 투자

천안함 사건(2010. 3) 이후 김정일의 세 차례 방중과 후진타오(胡錦濤)와 김정일 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구축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운영체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특구 안에 여러 산업구, 즉 경제무역구를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투자는 ① 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의 비파도관광지 개발, ②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의 시멘트 생산 등 건재산업단지 건설, ③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의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 ④ 길림성 공기업인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의 라선경제무역구 개발 등 4개였다(표 7 참조).

첫째, 길안집단의 비파도관광지 개발은 2009년 5월 투자자 모집을 시작해 2010년 3월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했는데,²³⁾ 라선특별시관광종합개발회사의 개발계획(2010. 7)에 따르면 1단계 개발면적(해변해수욕장과 기초시설 건설)은 30,000㎡, 투자자금은 2,000~5,000만 위안으로 위치는 카지노호텔인 영황 오락호텔(英皇娛樂酒店)의 인근이었다(그림 3 참조). 그런데 2015년 하반기경 길안집단은 비파도 해안 관광리조트계획을 수정, 홍보하면서 라선 길안관광개발회사의 이름으로 중국정부의 비준(2015. 11)을 다시 받았다.

〈표 7〉 주요 경제무역구 건설형 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10. 3	훈춘시: 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 (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	라선시관광종합개발회사 (羅先市旅遊(觀光)綜合開發會社)	비파도관광지 개발
2015. 11	훈춘시: 훈춘시길안실업집단유한공사 (琿春市吉安實業集團有限公司)	라선길안관광개발회사 (羅先吉安觀光開發會社)	비파도관광지 개발
2012. 11	장춘시: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 (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라선아태건설유한공사 (羅先亞泰建材有限公司)	건재산업단지 개발
2013. 1	훈춘시: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 (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	라선북대황친선(우호)농업회사 (羅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고효율농업시범구 개발
2013. 3	장춘시: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유한공사 (吉林經濟合作開發投資有限公司)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유한공사 (羅先經濟貿易區貿易開發投資有限公司)	라선경제무역구 개발

자료: 배중렬·윤승현(2015), p.69의 자료를 수정하여 작성함.

23) 배중렬·윤승현, 앞의 책, p.266.

[그림 3] 길안집단의 비파도관광지 개발 조감도



자료: 吉安集團 (<http://www.hcjian.com/index.html>, 검색일: 2016. 4. 20).

둘째, 아태집단은 2014년 중국 500강 기업에서 281위를 기록한 동북지역 건재산업의 최강자로²⁴⁾ 라선특구에 등장한 것은 연 100만톤 시멘트 생산공장의 착공식(2011. 6. 9)이었다. 이는 100만톤 시멘트 항목이 길림성의 우선진행 8개 프로젝트로 선정(2011. 3)된 결과였고, 아태집단이 건재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북한과 정식 투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은 2012년 8월 14일이었다. 건재단지의 위치는 웅상항 주변이고, 부지면적은 50만㎡이며, 합작기한은 50년인 아태집단의 100만톤 시멘트 생산 및 판매 프로젝트는 2012년 11월 상무부 비준을 득했으나 2013년 말 이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아태집단의 사례가 주목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측면이었다. 하나는 중국의 여타 북한 진출기업과는 달리 착공식(2011. 6. 9) 직후 특별제시(2011. 6. 11)를 통해 앞으로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시장 규칙에 따라 정보공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었고,²⁵⁾ 다른 하나는 시멘트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아태집단의 움직임이 중국정부에 의한 라선무역구 개발의 풍향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셋째, 북대황집단은 중국 최대의 현대농업기업그룹으로 중국기업 500강 순위에서 96위를 차지했던 기업인데,²⁶⁾ 벼와 채소 재배단지 건설을 위해 중국 대기업이 북한 협동농장에 투자한 것은 두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훈춘시의 대북 협상력 제고로, 훈춘시 농업국은 북·중 농업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라선지역에 식용버섯 시범구와 벼

24) 亞泰集團 集團簡介(<http://www.yatai.com/gyyt/jtjj/>, 검색일: 2015. 10. 7); 歷史沿革(<http://www.yatai.com/gyyt/lsg/>, 검색일: 2015. 10. 7).

25) 網易財經, 「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關於與朝鮮羅先市人民委員會經濟合作局簽訂建設年產100萬噸水泥粉磨站合」(http://quotes.money.163.com/f10/ggmx_600881_737347.html, 검색일: 2015. 9. 13).

26) 북대황집단, 「집단소개(베이따항 녹색으로 꿈을 이룬다: 헤이룽장강척지·베이따항그룹)」(<http://www.chinabd.com/bdghk/bdhjs.html>, 검색일: 2015. 9. 27).

시범구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했지만,²⁷⁾ 북한의 농업상황과 농정체제가 갖는 난관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하나는 농업실적이 필요한 북한 정세였다. 김정일 사망(2011. 12. 17) 이후 북한은 6·28조치 등 농업부문의 개선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는 흑룡강성의 북대항집단을 주목했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2년 10월 26일 수확을 시작했는데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무(666.6666667m²)당 평균 생산량은 400kg에 달했고 벼 생산량은 라선지역의 현지 생산량보다 2배가 많았다.²⁸⁾

넷째,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자유한공사의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자유한공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준은 2013년 3월 17일이었다.²⁹⁾ 이로써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설립 합의(2011. 7), 관리위원회 설립 협정 체결(2012. 8),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2012. 10)으로 이어졌던 중·북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인 라선경제 무역구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라선지역 공동개발면적 470km² 중 1차 개발면적 30km²가 가시권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길림경제합작개발투자자유한공사는 국가장길도전략계획(國家長吉圖戰略規劃)에 의거, 중국 상무부의 요청과 길림성정부의 지지하에 길림성투자집단유한공사(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와 장춘시건설투자공사(長春市建設投資公司)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7년 5월에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설립 자본금은 1억위안이며 주요 업무는 라선경제무역구, 중국두만강국제합작시범구(中國圖們江國際合作示範區),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의 건설과 관련된 중·북 양국 정부 간의 합작항목이었다.³⁰⁾

3. 자원개발형 투자

2003~15년 기간 길림성 대북투자 중 자원개발분야의 비중은 23.17%(82건 중 19건)로 금광, 철광, 동광, 몰리브덴, 석탄, 중석, 규소, 폐고령토, 벽돌, 석재, 모래·자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표 8 참조), 주목되는 분야는 철광석(HS2601)과 동광(HS2603), 그리고 금광(HS261690)이었다.

첫째, 중국의 무산철광개발은 길림성 상무청과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① 사전타당성조사(2003), ② 정식교섭 시작(2004년 후반), ③ 경제대표

27) 윤승현, 「북·중경협 및 농업·경공업 협력 사례」, 최용환 편, 『경기도의 북한 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 p.79.

28) 윤승현, 위의 책, p.81.

29) 상무부가 비준한 라선경제무역구개발투자자유한공사의 업무 범위는 ① 시장공용 등 기반시설, ② 전력 및 부대시설 공사, ③ 항구, 도로, 철도 등 공공서비스시설 건설투자, ④ 1급 토지개발, ⑤ 무역산업 합작, ⑥ 기술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경제무역구 개발 관련 업무였다.

30) 吉林省投資集團有限公司, 「投資企業」(<http://www.jilic.net.cn/sion/website/portal/investment.html?times=5&categoryId=54f585cad4e6f35f40d8d9db&company=55078971e4b0fd713249cff-c>, 검색일: 2015. 9. 29).

단 무산파견(2004. 8, 2004. 11), ④ 기초적 합의 달성(2005. 10), ⑤ 정식서명(2005. 11) 등 순항했으나,³¹⁾ 중국과 북한 간에 의견차이가 심화되면서 천지집단(天池集團)이 전면에 나서는 형태로 바뀌었다. 갈등의 원천은 두 가지, 투자방식과 가공도 및 인프라 정비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중국은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해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합영을 선호하고 원광석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중국 측에 경영권이 없는 합작방식을 선호하고 정광능력의 향상과 함께 김책제철소의 정상화 및 새로운 수출 루트의 개척에도 관심을 두었다. 즉, 무산광산 채굴능력의 향상은 북·중의 1차 관심사지만 중국은 철광석의 통화강철집단 수송과 관련 ① 선광공장 건설(화룡시 팔가자진), ② 13.5km 수송관 건설(화룡 남평-무산 칠성리), ③ 44km 철도 신설(백산진-천양)에 초점을 둔 반면, 북한은 ① 무산-청진철도의 보수공사, ② 청진항 수송설비의 개건도 요구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지집단의 평양 진출과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平壤國際投資合營公司)의 상무부 비준(2013. 5. 7)이었다.³²⁾ 달리 말해 무산철광의 개발에서 자주 차질이 발생하자 천지집단은 문제해결을 위해 평양으로 진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천지집단은 북한의 흑색금속무역회사(黑色金屬貿易會社)와 손잡고 보상무역방식으로 무산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혜산동광은 중국 대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했던 광산이었다. 중국의 대북 동광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길림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자연재해와 에너지 결핍 등의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혜산동광에 대한 최초 투자자는 중국 최대 황금생산 및 제련기업으로 혜산초금합영공사(惠山招金合營公司) 설립계약을 체결(2004. 9. 4)한 산동성 산동초금집단(山東招金集團)이었다. 이후 하북성 난하실업집단(灤河實業集團)이 자회사인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를 통해 혜산초금합영공사의 지분 51%를 매입했고,³³⁾ 그 중광국제투자유한공사를 만향자원유한공사(萬向資源有限公司)가 인수(2007. 6)함으로써³⁴⁾ 북한 혜산동광의 최종 투자자는 절강성 만향집단(萬向集團)으로 결정되었다.

31) 唱新(ちやんしん),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世界經濟研究協會, 2006. 5), p.33.

32) 평양판사처 상무부 비준은 2007년 3월 9일이고, 길림성 경외투자기업 비준이 2008년 7월 8일인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는 ① 연변천지공무유한공사가 600만 달러의 현금·설비를, 북한 평양기술개발중심(平壤技術開發中心)이 400만달러의 토지사용권·현금을 출자해 중국이 60%의 지분을 가진 합영회사로, ② 북한 경제발전 기여가 설립 목적이고, ③ 광산개발, 광산장비위탁판매, 철광분 회수 등이 주 업무이며, ④ 경영기간은 15년이었다.

33) 김진희, 「중국, 2000년대 북한 광물자원 눈독... 철·구리 광산 투자 '러시」, 『국민일보』, 2007. 4. 23.

34) 中國有色金屬工業協會, 「中朝簽署超級大單: 朝鮮全部銅精礦『都賣給中國』」, 2011. 9. 26(<http://www.chinania.org.cn/html/kuangchanziyuan/2011/0926/449.htm>, 검색일: 2015. 10. 10).

<표 8> 자원개발형 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5. 2	백산시: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초금광업유한공사 (招金鑛業有限公司)	혜산초금합영공사 (惠山招金合營公司)	동광
2005. 12	용정시: 용정시두만강수전유한공사 (龍井市豆滿江水電有限公司)	오룡합영공사 (五龍合營公司)	자철정광
2006. 6	집안시: 통화시의창경무공사 (通化市懿昌經貿公司)	락원금장합작회사 (樂園金昌合作會社)	중석
2006. 7	백산시: 백산시조씨무역유한공사 (白山市趙氏貿易有限公司)	장생조씨무역유한공사 (長生趙氏貿易有限公司)	철·동광
2006. 7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호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 (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	금광
2006. 12	요원시: 길림성북방공업집단공사 (吉林省北方工業硅集團公司)	위원군공업규장 (渭源郡工業硅廠)	공업규소
2007. 3	도문시: 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공업규소
2007. 8	용정시: 용정시청옥무역유한공사 (龍井市淸玉貿易有限公司)	조선보통강건재합영공사 (朝鮮普通江建材合營公司)	벽돌
2007. 12	연길시: 연변해구동부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海溝東部進出口貿易有限公司)	조선회령광업개채합작회사 (朝鮮會寧礦業開采合作會社)	몰리브덴
2008. 4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2008. 7	둔화시: 둔화시봉해광업개발유한공사 (敦化市峰海礦業開發有限公司)	금봉합영회사 (金峰合營會社)	폐고령토
2009. 7	백산시: 길림성장백경제개발구변경무역진출구총공사 (吉林省長白經濟開發區邊境貿易進出口總公司)	길평마안산합영회사 (吉平馬鞍山合營會社)	석탄
2012. 3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평광업유한공사 (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	개선평광업합영회사 (凱旋曙光礦業合營會社)	철광
2012. 6	용정시: 용정봉정무역유한공사 (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라선석재합영회사 (羅先石材合營會社)	석재
2013. 5	연길시: 천지집단유한공사 (天池集團有限公司)	평양국제투자합영공사 (平壤國際投資合營公司)	광산
2013. 5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조선은해합영회사 (朝鮮銀海合營會社)	철광분
2013. 7	용정시: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 (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모래·자갈
2013. 12	도문시: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공업규소
2014. 4	반석시: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p.91~92.

그러나 사업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2007년 8월 3일 해주광업합영회사의 설립에 대해 상무부 비준을 득했지만 인수에서 개업(2011. 9. 19)까지는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계약내용에 대한 불만과 구리정광의 제련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즉, 혜산동광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수용한 “해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정광을 전량 중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북한과 나누는 방식의 계약체결”이 쟁점이었다. 북한이 합영계약을 파기하면서 제기한 주요 논점 중의 하나는 “구리정광을 북한에서 제련해 현물로 나누자”는 것이었다.³⁵⁾ 이에 대해 만향집단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통해 김정일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초기 계약 준수를 관철하였다.³⁶⁾ 김정은 시대에 들어 주목되는 또 하나의 만향집단의 행보는 2014년 길림성 장백현에 북한 투자 회사인 혜중광업합영회사의 ① 생산제품 마케팅, ② 원자재 구매, ③ 결산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회사(中礦國際[長白]易有限公司)를 설립한 것이었다.

셋째, 길림호용집단(吉林昊融集團)의 북한 선천금광개발은 2006년 4월 13일 북경협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의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中國有色礦業集團有限公司)와 길림호용집단, 그리고 북한 조선금강총회사(朝鮮金剛總會社) 3사는 두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하나는 평양에 북한의 금, 동, 몰리브덴(鉬) 등 유색금속광산의 공동개발·공동경영을 위한 합영회사의 설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유색집단과 길림호용집단이 선천금광개발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³⁷⁾ 이에 따라 길림호용집단 산하의 길림 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가 전면에 나섰다. 독자기업인 조선호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의 상무부 비준(2006. 7. 18)에 이어 2007년 3월 20일에는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中色國際礦業股份有限公司), 조선금강총회사 간에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조선금강광업회사)의 상무부 비준은 2008년 4월이었는데, 2014년 4월 다시 상무부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광산개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길림호용집단의 대북투자 확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즉, 자회사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의 북한 평안남도 비류강금광 투자였다.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가 북한의 조선금강총회사와 함께 금정광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각각 200만달러를 출자한 비류강금산합작회사는 2013년 11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득했다(표 9 참조).

35) 자유아시아방송, 「해산청년광산, 김정일 방문 앞두고 분주」, 2011. 12. 6(<http://www.rfa.org>, 검색일: 2015. 11. 16).

36) 중광국제유한공사의 홈페이지는 “해산청년동광항목은 원자바오 총리, 김정일 장군의 관심을 받았고 김정일 장군이 두 번이나 광산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중북 사이 광산자원합작의 시범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 中礦國際投資有限公司, “公司簡介,” 2012. 5. 18(<http://www.smii.com.cn/news/?1.html>, 검색일: 2015. 10. 12).

37) 中國政府網, 「中國有色集團等與朝鮮金剛總會社簽署合作協議」, 2006. 4. 18(http://www.gov.cn/jrzq/2006-04/18content_256778.html, 검색일: 2014. 10. 5).

<표 9> 길림호용집단의 대북투자

비준 연월	투자가 지역	투자 모기업	투자 기업명	경영 범위	비고 (투자액, 유형, 기한 등)
2006. 7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희용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 (朝鮮昊融國際礦業有限責任公司)	금광 개채	독자(20년) 625만달러
2008. 4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有色金屬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개채	합영(20년) 투자총액 600만 유로
2013. 11	요녕성 단동시	단동호용무역유한공사 (丹東昊融貿易有限公司)	비류강금산합작회사 (飛流江金山合作會社)	금정광 생산·판매	합작 200만달러
2014. 4	길림성 반석시	길림호용집단유한공사 (吉林昊融集團有限公司)	조선금강광업회사 (朝鮮金剛礦業會社)	금광 개채·판매	합영(투자 변경)

4. 분업기지 구축형 투자

길림성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투자와 관련된 중요 생산공정을 모두 북한으로 가져가지 않고 일부 공정을 접경지역의 중국경제개발구 등지에 두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조치였다. 예를 들어 <표 10>에서 보듯이 광산분야에서 ① 천지집단은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위안(1,200만달러) 규모의 채광설비를 투자(2003. 10)했지만, 선광공장(120만톤, 투자규모 3억위안)은 화룡시 팔가자진에, ② 길림서광공무유한공사(吉林曙光工貿有限公司)는 갑산 문락광 자철광개발을 위해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를 설립(2006. 6)하면서 중국 측이 3,600만위안 상당의 채광설비, 운송차량, 선광공장을 출자(지분 60%)했지만, 선광공장과 재무담당부서(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는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에 두는 전략을 채택했다.³⁸⁾ 이와 같은 사례는 수산업분야에서도 일부 보이는데, 주목되는 지역은 훈춘변경경제합작구였다.

길림성이 2006년부터 요녕성을 제치고 대북 어류(HS03)수입 1위로 부상하면서 수산분야의 대북투자(표 11)의 증가와 함께 ① 2009년 연변성해공무유한공사(延邊盛海工貿有限公司), ② 2010년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③ 2011년 연태대신훈춘수산유한공사(煙台大震琿春水產有限公司), ④ 2012년 훈춘동봉공무유한공사(琿春東鵬工貿有限公司), ⑤ 2013년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 등 주요 성의 유력 수산기업들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입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중 분업기지 구축과 관련 주목되는 사례는 요녕성 대련동양과 길림성 훈춘홍호식품이었다. 미국의 독자투자기업인 대련동양은 2010년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훈춘동양을 설립(1기공사 투입자금 1.3억

38) 이준호, 「북-중, 철 정제가루 선광합자회사 설립」, 『KOTRA 북한경제속보』, 2007. 6. 15.

〈표 10〉 분업기지 구축형 대북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특기사항)
2005. 11*	연길시: 천지집단유한공사 (天池集團有限公司)	무산철광투자	철광 (선광공장은 중국)
2012. 3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 (長白朝鮮族自治縣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	개선서광광업합영회사 (凱旋曙光礦業合營會社)	철광 (선광공장은 중국)
2012. 8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 (朝鮮羅先巨盛加工貿易會社)	수산물 (양쪽에 가공공장)
2015. 5	훈춘시: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琿春紅昊食品工貿有限公司)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 (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會社)	수산물 (양쪽에 가공공장)

주: * 합영계약서 체결 기준임.

자료: 배중렬·윤승현(2015), p.139.

위안, 점유면적 3만㎡)하고,³⁹⁾ 2013년 독자투자기업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에 900만달리를 투자했으며, 반면 훈춘시 태생인 훈춘홍호의 총경리 희운산(姬雲山)은 북한회사인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會社)와의 합작 등 라선지역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훈춘홍호의 라선지역 가공능력은 2014년 기준 6개의 가공공장에 연간 오징어제품 생산량은 4만톤, 즉각 냉동저장 능력은 2만톤이었다.⁴⁰⁾

그런데 두 사례에서 나타난 훈춘과 나선의 분업방식은, 수산물 품질유지에 중요한 1차 가공은 생산지에서 가깝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선지역이 담당했고, 2차 가공부터는 훈춘지역이 담당하는 구조였다.

39) 琿春示範區網, 「琿春海產品加工業向集羣化發展」, 2014. 6. 19(<http://www.hunchunnet.com/archives/4574/>, 검색일: 2015. 10. 17).

40) 훈춘지역은 부지면적 18,600㎡, 그중 생산작업장 4,000㎡, 냉동창고 6,000㎡, 사무실건물 2,400㎡, 공장녹화면적 1,200㎡, 독립된 제빙창고, 냉장보관창고, 가공생산 라인에서 연간 수산제품 생산능력 2만톤, 연간생산액 1.5억위안이었다. 琿春老姬食品工貿有限公司, 「公司簡介」, 2008. 2. 14(<http://hclaoji.com/Ch/About.asp>, 검색일: 2015. 10. 18); 琿春示範區網, 「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新建冷 冷凍或11月中旬投入使用」, 2014. 10. 17.

<표 11> 수산분야의 대북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7. 2	도문시: 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 (延邊王達貿易有限公司)	라진은행회사 (羅津銀港會社)	어구공급, 수산물 가공양식
2010. 5	훈춘시: 훈춘시지강과기유한공사 (琿春市智強科技有限公司)	조선라선신흥분상사 (朝鮮羅先新興分商社)	수산물 생산·가공
2010. 12	양정현: 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공사 (延邊汪淸干菜加工有限公司)	라선태화회사 (羅先泰和會社)	수산물 등 판매
2012. 8	훈춘시: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조선라선후성가공무역회사 (朝鮮羅先戶盛加工貿易會社)	오징어, 대구 등 수산물 수출입
2013. 2	연길시: 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 (延邊美香民族食品加工有限公司)	연변미향[라선]식품회사 (延邊美香[羅先]食品會社)	식품, 수산물 가공·판매
2015. 3	훈춘시: 훈춘홍원공무유한공사 (琿春紅源工貿有限公司)	조선라선홍원무역회사 (朝鮮羅先紅源貿易會社)	오징어 등 수산물 판매
2015. 5	훈춘시: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琿春洪昊食品工貿有限公司)	수채봉수출수산물합작사 (水彩峰水輸出水產合作社)	수산물 매집, 가공 및 판매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147.

5. 노동력 확보형 투자

길림성의 대북 10대 수출품에서 2007년 7위였던 편물의류(HS61: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가 2013년부터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길림성이 요녕성을 제치고 대북 편물의류(HS61) 수입 1위 성으로 올라섬에 따라 길림성과 북한이 중국 의류산업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했다. 이는 세 가지 연유에서 파생했다. 첫째는 훈춘기업들의 대라선투자, 둘째는 대북 위탁가공무역(출경가공)정책, 셋째는 북한 노동력 고용정책이었다. <표 12>에서 보듯이 길림성 기업들이 독자기업인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 합작기업인 조선라진혜성회사 등 대북 투자기업을 통해 일찍부터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이라는 중국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점차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3년 1월부터 화주단위(貨主單位) 제도의 도입 등 훈춘 4개사에 대한 출경가공 지원정책이 단행되면서⁴¹⁾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순이익의 증가, 수출과 국내 판매액의

41) 2013년 1월부터 2년간 ① 한국의 독자기업인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吉林特來紡織有限公司), ② 일본의 독자기업인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小島衣料[琿春]紡織有限公司), ③ 중국 국내 기업인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와 ④ 훈춘홍풍제의유한공사(琿春弘風製衣有限公司) 등 훈춘 입주 4개사의 대북 위탁가공무역(출경가공)에 대한 훈춘시 정부의 시범적 지원정책이 단행되었다. 화주단위제도란 한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과 위탁가공을 할 수 없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와 고지마의류[훈춘]방직유한공사를 위해 다른 회사에 위탁하

〈표 12〉 노동력 확보형 대북투자(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3. 11	훈춘시: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 (琿春風華制衣有限公司)	라선시풍화제의유한공사 (羅先市風華制衣有限公司)	복장 가공
2007. 6	훈춘시: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 (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	조선라진혜성회사 (朝鮮羅津惠性會社)	복장 가공 (침직)
2009. 7	훈춘시: 훈춘시초월상무유한공사 (琿春市超越商貿有限公司)	해양편직품가공회사 (海洋針織品加工會社)	복장 가공 (각종 침직품)
2012. 7	훈춘시: 훈춘원형경무유한공사 (琿春遠馨經貿有限公司)	라선영선합영회사 (羅先領先合營會社)	복장 제조
2012. 8	훈춘시: 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 (琿春明旭實業有限公司)	라선명옥무역회사 (羅先明旭貿易會社)	유행복 생산
2015. 11	용정시: 용정청연민족복식유한공사 (龍井淸淵民族服飾有限公司)	청진명옥무역회사 (淸津明旭貿易會社)	유행복 생산

자료: 배중렬·윤승현(2015), p.162의 자료를 수정함.

증대 등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하면서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도 증가했다. 2015년 말 현재 훈춘시범구에서 나선지역 의류가공사업에 중점 투자한 기업은 총 11개였고, 이 중 9개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조선나진혜성회사와 합작하였다. 합작방식은 북한 측이 토지, 공장건물, 노동력을 책임지고 제공하며, 중국 측은 생산설비, 기술과 함께 주문(order)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북한 노동력 수입정책은 2012년 1월 중국 길림성과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간에 체결된 <2만 명의 북한 기능인재를 도문과 훈춘일대에 취업을 허가>라는 협정이 기반이 되었는데, 2015년 7월 기준 길림성 대북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들의 북한 노동력(기능인재) 고용인원은 중국(도문)조선공업원 2,600명, 훈춘변경경제협력구 2,000명, 연길첨단산업개발구 200명, 용정 공업집중구 200명 포함 5,000명으로 그중 IT인재는 500명이었고, 노동력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0위안 정도(중국의 60%)였다.⁴²⁾

는 방식으로 출경가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延邊州政府 琿春海關, “琿春海關支持吉林省對朝出境加工試點工作取得顯著成效.” 2015. 1. 13 (<http://www.yanbian.gov.cn/tpl/txt/2012031611081743.jsp?infolid=35227>, 검색일: 2015. 10. 22).

42) 서철준, 「두만강(훈춘) 지역의 북한 인적자원 협력과 개발」, 『동북아시아 북한기업경영모형』, 연세대학교·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공동 주최 제1회 북한기업경영심포지엄, 2015. 11. 2.

6.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7·1조치 이후 북한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관심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 즉 ①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자재(표 13-1 참조), ② 물자유통과 숙박(표 13-2 참조), ③ 소비재(표 13-3 참조)분야였다. 플라스틱제품(HS39)은 대북수입보다는 대북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길림성의 대북수출이 1,000만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 길림성의 기업으로 북한의 플라스틱시장에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인 기업은 그 전신이 도문시 민족 비닐공장인 도문시 화인비닐제품유한공사로, 합영기업 설립합의서 체결은 1994년 6월,⁴³⁾ 정상가동은 1999년 8월, 상무부 비준은 2005년 11월인데 가동 즉시 흑자경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정상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건축재료, 콘크리트, 시멘트, 난방설비 등 일반 건축자재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이 확대되고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전시성 건설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자유통 및 숙박 분야는 현재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게 전망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① 물자 및 여객 운송, ② 대형 슈퍼마켓과 상업단지 건설, 도소매시장 운영, 비즈니스센터 설립, ③ 술, 음료, 기름, 연료, 선상용품 등의 판매, ④ 기계설비 임대, ⑤ 호텔 등 다양한 품목에서 대북투자가 발생했는데 주목되는 사례는 라선강덕산업회사의 대형슈퍼마켓과 라선왕복특무역유한공사의 대형 상업단지였다. 투자 총액 8,000만위안, 총 건축 면적 21,600㎡,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매층의 건축면적이 평균 3,600㎡인 라선강덕의 대형슈퍼마켓은 2011년 천우집단(天宇集團)의 투자였던 나진시장을 개건·확장하는 형태로 나선시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고,⁴⁴⁾ 라선 왕복의 대형 상업단지는 나선지역 금광개발사업(70% 채굴권에 50년)에 이미 투자한 도미니카 국적의 이탈리아 우나포르페 유한회사가 설립한 라선우나포르페유한회사의 임차토지(나선시 안화동 20,000㎡) 위에 건축면적 50,000㎡로 건설 중에 있었는데,⁴⁵⁾ 2014년 4월 1일 상무부 비준을 득하였다.

43)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편람」, p.81.

44) 羅先港, 「羅先康德綜合市場商鋪租賃/銷售」, 2013. 5. 21 (http://115.47.205.42/board.php?bo_name=%E7%BD%97%E5%85%88%E6%B0%E9%97%BB&wr_id=383, 검색일: 2015. 10. 27).

45) 香港旺福特有限公司下屬企業(<http://www.unaforte.net/js/xsqy.html>, 검색일: 2015. 10. 31)

<표 13-1> 내수시장 진출형 대북투자: 플라스틱·건축자재 분야(2003~15년)

분야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플라 스틱	2005. 9	도문시: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13. 12	도문시: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05. 11	도문시: 도문시화인빌재품유한공사 (圖們市誼達民族塑料製品有限公司)	라도수지합영회사 (羅圖樹脂合營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2011. 10	훈춘시: 훈춘승진무역유한공사 (琿春承珍貿易有限公司)	라선승진회사 (羅先承珍會社)	플라스틱제품 생산·판매
건축 자재	2006. 12	도문시: 도문흥배물자무역공사 (圖們鑫環物資貿易公司)	청흥합작회사 (淸興合作會社)	각종페인트 생산·판매
	2011. 11	훈춘시: 연변선춘국제무역유한공사 (延邊先春國際貿易有限公司)	조선국제선춘회사 (朝鮮國際先春會社)	건축재료 가공·위탁판매
	2012. 11	연길시: 연변성신혼응도유한공사 (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연변성신[라선]건재창 (延邊誠信[羅先]建材倉)	콘크리트 생산·판매
	2012. 11	장춘시: 길림아태[집단]주식유한공사 (吉林亞泰[集團]股份有限公司)	라선아태건재유한공사 (羅先亞泰建材有限公司)	시멘트 생산·판매
	2013. 5	연길시: 연변성신혼응도유한공사 (延邊誠信混凝土有限公司)	평양북방건재합영공사 (平壤北方建材合營公司)	시멘트 생산·판매
	2014. 3	연길시: 연변창신방지산개발유한공사 (延邊創新房地產開發有限公司)	라선삼봉건재공사 (羅先三峰建材公司)	건재 생산·판매
	2014. 7	연길시: 연길흥원지난공경유한공사 (延吉歡元地暖工程有限公司)	라선흥원회사 (羅先歡元會社)	난방설비 생산·판매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174.

<표 13-2> 내수시장 진출형 대북투자: 물자유통·숙박 분야(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5. 9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 (平壤出口物資運輸合作會社)	물자운송
2006. 4	연길시: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 (延邊虹達工貿有限公司)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 (朝鮮羅先美延商業會社)	상업 (술, 음료)
2006. 12	도문시: 도문홍배물자무역공사 (圖們鑫環物貿貿易公司)	삼복운수기술합작회사 (三福運輸技術合作會社)	상업 (선상용품 등)
2011. 7	용정시: 용경봉정무역유한공사 (龍井峰程貿易有限公司)	라선봉정회사 (羅先峰程會社)	상업 (기름, 연료)
2011. 9	훈춘시: 연변위봉국제경무유한공사 (延邊衛峰國際經貿有限公司)	조선라선위봉경무회사 (朝鮮羅先衛峰經貿會社)	기계설비 임대
2011. 12	연길시: 연길시이마내리무역유한공사 (延吉市以馬內利貿易有限公司)	라선이림유한공사 (羅先以林有限公司)	숙박·상업
2012. 6*	연변동북아객운집단유한공사 (延邊東北亞客運集團有限公司) · 길림우벌이운수집단유한공사 (吉林省宇爾運輸集團有限公司)	라선시동우운수합작유한공사 (羅先市東宇運輸合作有限公司)	여객운송
2012. 8	연길시: 연변강덕망락과기유한공사 (延邊康德網絡科技有限公司)	라선강덕산업회사 (羅先康德產業會社)	대형슈퍼마켓
2012. 10	훈춘시: 연변원통국제과공무유한공사 (延邊遠通國際科工貿有限公司)	선봉연유가공합영회사 (先鋒燃油加工合營會社)	중계무역 (연유가공)
2012. 12	장춘시: 장춘신대석유집단농안석유화학유한공사 (長春新大石油集團農安石油化工有限公司)	라선신대국제상무중심회사 (羅先新大國際商貿中心會社)	비즈니스센터
2013. 7	연길시: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 (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라진시장합영회사 (羅津市場合營會社)	시장운영 (도소매)
2014. 3	훈춘시: 훈춘금도대지무역유한공사 (琿春金道大地貿易有限公司)	라선관광대지합작회사 (羅先觀光大地合作會社)	호텔
2014. 4	연길시: 연변왕복특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旺福特進出口貿易有限公司)	라선왕복특수무역유한공사 (羅先旺福特貿易有限公司)	대형상업단지
2014. 5	훈춘시: 훈춘시남양구물유한공사 (琿春市南洋購物有限公司)	라선남양회사 (羅先南洋會社)	호텔

주: * 설립일 기준임.
자료: 배중렬·윤승현(2015), p.176.

〈표 13-3〉 내수시장 진출형 대북투자: 소비재 분야(2003~15년)

비준 연월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투자 품목
2007. 4	장춘시: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 (吉林省友誼進出口有限公司)	조선영광가구합영회사 (朝鮮榮光家具合營會社)	가구
2008. 1	연길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담배
2009. 3	요원시: 요원시가익침방유한공사 (遼源市嘉益針紡有限公司)	선원말업가공창 (先源絲業加工倉)	양말
2010. 1	백산시: 길림성중금광업유한공사 (吉林省中金礦業有限公司)	금강기차합영회사 (金剛汽車合營會社)	자동차 조립
2010. 12	장춘시: 길림성성세광산품유한공사 (吉林省盛世礦產品有限公司)	삼대성합영회사 (三大星合營會社)	자동차 조립
2011. 7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 (平壤消防器材合營會社)	소화기
2014. 7	부여시: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松原市吉盛中糧進出口有限公司)	라선시길성동아회사 (羅先市吉盛東亞會社)	맥주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178.

소비재 분야 또한 중국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오랫동안 경공업생산이 부족했고, 제품의 질도 높지 못했다. 시장의 확산으로 소득수준이 증가될 경우 일용 소비재뿐만 아니라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가구, 담배, 양말, 자동차 조립, 소화기, 맥주 등의 분야에서 대북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주목되는 사례는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의 영광가구합영회사였다. 가구(HS94)는 거의 대북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길림성은 2014년에 1,000만달러대의 대북수출을 기록했다. 중국과 북한 간의 영광가구 합영은 1993년 6월 요녕성 심양국가기계설치판매공사, 2004년 4월 길림성중상대외무역수출입공사 등을 거쳐 2007년 4월 29일 장춘시의 길림성우의수출입유한공사의 상무부 비준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길림우의는 평양 주재 길림성무역종합대표처(吉林省駐平壤貿易綜合代表處)가 2005년 중국에 설립한 무역공사였다. ① 등록자본과 투자 총액 218.68만달러, ② 지분 50:50(중국 측 설비·원재료 109.34만달러, 북한 측 토지·설비·건물 등 109.34만달러), ③ 경영 기간 10년인 영광가구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4년 5월 재개장한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 단야영소 가구들이 모두 영광가구합영회사 제품이며, 마식령스키장호텔, 평양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

원, 문수물놀이장에도 납품했다”⁴⁶⁾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전문지식 활용형 투자

길림성 대북투자의 상당 부분이 처음 진출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표 사무소나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을 보유한 회사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다수의 투자기업을 보유한 기업을 전문지식 활용형 투자라 정의할 때, 주목되는 회사는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천우건설집단주식유한공사였다.

첫째, 해화집단은 <표 14-1>에서 보듯이 9건의 정부 비준을 득했는데,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의 이름으로 4건의 대북투자를 하였다. ① 연변 해화의 청진금속합작회사에 98.7만달러, 청진수성천합작회사에 78.3만달러, ② 길림송화의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에 120만달러,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에 215.9만달러, ③ 해화무역집단의 해항합영회사에 943만 7,840유로 등을 출자했다.

<표 14-1> 전문지식 활용형 대북투자: 해화무역집단(2003~15년)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비준 연월	투자 품목	
도문시: 해화무역집단 유한공사	평양수출물자운수합작회사 (平壤出口物資運輸合作會社)	2005. 9	물자운송	
	장춘시: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평양판사처 (吉林省松花江貿易有限公司平壤辦事處)	2006. 1	사무소
		평양소방기재합영회사 (平壤消防器材合營會社)	2011. 7	소화기
		조선은해합영회사 (朝鮮銀海合營會社)	2013. 5	철광석
	도문시: 연변해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延邊海華進出口貿易有限公司)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2005. 9	플라스틱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2007. 3	공업규소
	도문시: 해화무역집단유한공사 (海華貿易集團有限公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淸津水成川合作會社)	2013. 12	공업규소
		청진금속합작회사 (淸津金屬合作會社)	2013. 12	플라스틱
		해항합영회사 (海港合營會社)	2013. 12	청진항 부두

자료: 배종렬·윤승현(2015), pp.203~204.

46) 『연합뉴스』, 「北 건설분야에 가구업체 급성장... '대외시장에도 진출」, 2014. 6. 12(<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2/0511000000AKR20140612164200014.html>, 검색일: 2015. 10. 31).

〈표 14-2〉 전문지식 활용형 대북투자: 천우와 길림연초(2003~15년)

투자모회사 지역과 기업명	북한 투자 기업명	비준 연월	투자 품목	
연길시: 길림천우건설 집단지식유한공사	연길시: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 (羅先同利砂石合營會社)	2013. 7	모래·자갈
	연길시: 길림천우건설집단지식유한공사 (吉林天宇建設集團股份有限公司)	라진시장합영회사 (羅津市場合營會社)	2013. 7	종합시장
연길시: 길림연초공업 유한책임공사	연길시: 연길권연공장 (延吉捲煙廠)	대동강연초유한공사 (大同江煙草有限公司)	2000. 4*	권연생산
	연길시: 연길권연공장 (延吉捲煙廠)	라선신흥연초공사 (羅先新興煙草會社)	2001. 10*	담배
	연길시: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平壤白山煙草有限責任公司)	2008. 1	담배

주: * 2002년 7·1조치 이전에 투자한 기업이라 조업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배종렬, 윤승현(2015), pp.204~205의 자료를 수정함.

둘째, 2006년 12월 1일 연길권연공장(延吉捲煙廠)과 장춘권연공장(長春捲煙廠)이 연합 재편한 결과로 설립된 길림연초는 담배에 특화된 기업으로 연길권연공장이 북한에 투자한 대동강연초유한공사와 라선신흥연초회사, 길림연초가 투자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의 3개의 투자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다.⁴⁷⁾ 대동강연초유한공사는 1998년에 합병하여 2000년 4월 27일 조업하였는데, 중국이 61.2만달러(지분 51%)의 생산설비를 투자했고, 라선신흥연초회사는 1999년부터 기획·건설을 시작, 2001년 10월 18일 정식 개업한 독자기업으로 등록자본 및 투자 총액은 305만달러였다. 그리고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는 2007년 1월 합병하여 2008년 4월 23일 조업하였는데, 투자액은 204만유로(지분 51%)였다.

셋째, 천우집단의 대북사업은 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공사가 관장하며 산하에 조선무산선광장, 조선청진선광장, 조선나진시장,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등의 대북사업이 있는 구조로 천우집단의 대북사업은 네 가지 분야로 대별되었다.⁴⁸⁾ 첫 번째는 2015년 중국건재그룹의 60만톤 라선 시멘트분말공장의 건설시공 등과 같은 국제공사였고, 두 번째는 최초 900개 매장으로 시작해 2015년 5월 기준 5,600여 개 매장으로 발전한 나진시장 운영이었다. 세 번째는 ① 무산군 자철광산 미광사업(970만 달러), ② 청진시 자철정광 미광사업(600만 달러), ③ 청진시 슬라크사업(400만 달러), ④ 연 60만 톤 모래·자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47)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公司簡介」(<http://www.jilintobacco.com.cn/index.php?m=content&c=index&a=lists&catid=12>, 검색일: 2015. 11. 4).
48) 延邊朝鮮族自治州 農業信息網, 「延邊天宇國際貿易有限公司」, 2012. 5. 8(http://yanbian.jlagri.gov.cn/Html/2012_05_08/85147_85261_2012_05_08_123353.html, 검색일: 2015. 11. 15).

라선동리사석합영회사의 설립 등 2005년 6월 이후 4,000여 만 달러를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이었다. 네 번째는 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를 통한 대북 관광사업이었다.

IV. 맺음말

북한의 3차 핵실험(2013. 2)에 이어 장성택 숙청(2013. 12)이 진행되면서 김림성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심 축인 두 경제지대 인프라 건설 등 중·북 정부 간 경제협력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지만, 중국은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상무부의 비준 계속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2016. 1. 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 2. 7)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2270호 채택)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법안(H.R.757) 발효(2016. 2. 19) 등 한·미·일의 독자 제재 강화로 나타나면서 김림성의 대북투자에도 난관이 조성되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자금원천 차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①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역할론 부각, ②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불허, ③ 세컨드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도 도입 등이 발생하면서 대외교역, 해운·항공 운송, 금융 등의 영역에서 중국기업들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김림효용집단의 금광개발 투자, 만향집단의 동광개발 투자 등 북한에 진출한 중국 대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주목된다.